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인증 '공통표지' 를 기억하세요!



인 증 기 관

앞으로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Logo)' 형태 하나만 기억해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인증제 표지도 매우 다양하여 구분이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인증표시에 있어 통일된 용어 사용과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농식품 표시 비신뢰 이유(소시모, 2010) : 인증표시가 너무 많아
 세(44.7%) > 과장된 선전 같아서(20.3) > 비표시품과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13.0)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총 9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인

증제도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 형태로 단일화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통표지 형태는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과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인장)' 모양의 사각프레임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식품' 과 '국가인증의 권위' 를 표현하였고, 표지내(內) 명칭은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불필요한 수식용어는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명료하게 표현하였으며, 색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이미지를 대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선호하는 '초록색' 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다양한 포장재와 포장형태를 고려하여 '적색' 과 '청색' 을 보조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표지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망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공통표지 도입은 그동안 각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인증



제도로 분산된 홍보역량을 집중하고 공통표지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통표지(Logo) 도입 필요성(2010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인지도 조사, 농식품부) - 필요(79.1%) > 불필요(12.1%) > 보통(8.8%)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서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센터 개소



지난 7월 25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이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에 신고하여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에서는 축산관계자의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센터 개소식 및 구경검역 홍보캠페인’ 행사를 벌였다. 이날 개

소식에는 농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과, 소비안전정책관, 소비안전정책과장, 검역정책과장 및 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안전부장, 검역검사과장, 축산관련 각 단체장들이 참석하였다(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수첩2·55p 참고).

농촌진흥청

아프리카에 ‘가축개량기술’ 전수한다

농진청,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워크숍 개최



농촌진흥청은 7월 4일~13일까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이하 KAFACI),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과 국제축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워크숍’을 에티오피아 훌레타 농업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는 에티오피아, 케냐, 가봉, 모로코 등 아프리카 12개 회원국에서 21명이 참가했으며, 이 워크숍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지역 가축개량과 축산분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KAFACI는 작년 7월 출범해 올 3월에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수행 사업은 1)전 회원국이 협력하는 범아프리카 과제, 2)아프리카 지역의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권역별 과제 3)각 국가에 특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별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워크숍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 5명이 10일간 소, 젓소와 같은 대가축의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기술을 실습 위주로 진행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의 생식세포 확보와 동결보존을 위한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23명의 아프리카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가별 과제 발굴을 위한 On-the-Job Training이 진행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아프리카 현지의 기후와 토양이 다른 점을 고려해 축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전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이 워크숍을 통해 국격제고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사료용’ 농산부산물, 스마트폰으로 사고 팔고
농진청, 사료용 농산부산물 정보제공 스마트폰 앱 보급

농촌진흥청은 한우와 돼지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부산물의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등 악성질병과 더불어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생산량의 감소와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따른 곡물 수요 증대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사료비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농가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값싼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거래정보와 올바른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실제 재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판매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다. 농산부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이용자 간 적절한 거래정보 교환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싸다고 영양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가축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농산부산물의 사료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산부산물의 일반적인 특성, 영양가치, 사용시 주의사항을 고려해 정확한 이용방법을 제시하고,

대두박과 옥수수 등의 사료가치와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농산부산물의 적정한 가격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산부산물의 사

료가치를 평가해 이 애플리케이션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용과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되었으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여행지별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 예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휴가철에는 식중독이 해안가 및 산간지역 등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휴가철 여행지별로 준수해야 하는 「식중독 예방 요령」을 제시하고 식중독 없는 건강한 휴가 보내기를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도시락 등을 준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서지로 갈 때에는 4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가급적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물 보관을 피하는 등 여행지별로 주의해야 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제시하였다.

● 바닷가에서는

- 바닷가에서 직접 잡은 어패류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2~3회 세척·조리하여 섭취(※ 바닷물로 세척 금지)
- 장염비브리오균이 많이 있는 내장 및 아가미 부위는 가급적 제거하고 섭취

● 캠핑장에서

-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한 식재료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섭취
-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히지 않은 고기와 과

일, 야채류를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하여 보관

- 바비큐 등을 먹을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섭취(※ 중심 온도가 85°C에서 1분 이상 가열)
- 생고기에 사용한 젓가락을 세척 없이 바로 다른 음식 섭취·조리에 사용금지

● 계곡에서는

- 민물고기 및 민물패류는 기생충의 중간숙주 이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잘 익혀서 섭취
- 인근 지하수나 샘물 등은 반드시 끓여서 음용

● 산에서는

-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거나 독버섯을 식용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경우 있으므로 야생식물은 채취나 섭취를 자제
- 산나물은 고유의 독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로 처리하여 섭취

한편, 식약청은 2학기 개학에 맞추어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8월 29일~9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지자체, 지방교육청 및 지방식약청이 합동으로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급식시설 및 기구·용기의 위생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무표시 원료 및 식품 사용 여부 ▲개인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지도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여 학교에서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유통공사

aT,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상황실 본격 가동 7월 20일부터 물가안정대책 상황실 가동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상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수료식 개최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 이 설치, 운영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하영제)는 농축수산물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성수기 물가안정을 위해 20일부터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본격 가동하게 됐다고 지난 7월 21일 밝혔다.

김희국 유통이사가 상황실장을 맡은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은 산지동향반, 가격조사반, 품목별 실무반, 해외정보반 등 4개 반에 품목별 전문가 16명이 배치되어 물가안정 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aT에 따르면 이들은 배추와 무를 포함하여 최근 가격상승 중인 양파, 삼겹살 등 농축수산식품의 산지 및 도매시장 동향 파악, 도·소매가격 조사 그리고 수입국 작황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신속히 수급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휴가철과 추석 등 성수기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하영제 aT 사장은 '농축수산물의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고객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HACCP교육

경남 산청 HACCP농업인과정 특별교육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 석희진)은 7월 8일 경남 산청군 축산청정센터에서 축산물HACCP 농업인과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구제역 이후 축산물 HACCP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거창·함양·산청 지역에서의 특별교육을 요청한 한우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설되었으며, 산청지역을 포함한 경남지역의 61개 농가가 HACCP 지정 준비 및 정기교육 수료를 위해 참여하였다.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HACCP 정책 및 고시, HACCP 7원칙, 성공적인 HACCP 등 총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HACCP에 대한 이론 외에도 HACCP운용과 관련된 현장정보, 축산정책이나 변화된 법령 등 농가에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한편, 석희진 기준원장은 같은 날 오전 거창군이 주관한

53개 한우농가에 대한 HACCP지정서 수여식에 참여해 지역농가를 격려하고, 이어 산청지역 특별 교육장에도 직접 방문하였다.

석원장은 교육장에서 “지정서 수여식 및 특별 교육실시를 통해 구제역 사태로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경남지역 축산농가가 다시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길 바란다. 특히 청정지역인 거창 축산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 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일행 농협중앙회 방문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제1차관(제1차관 응우옌 타잉 화외 7명) 일행을 맞이하여 양국간의 외국인근로자 도입확대 및 국제결혼 중개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인구 약 8,700만명의 농업국가로 농협에서 2003년 시행한 산업연수제 이후 7,445명(2011.6.30현재)이 입국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축산분야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농·축산분야외국인 근로자 총 입국인원 17,422명에 약 절반(42.7%) 가까이 해당되는 인원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베트남여성연맹(VWU)과 협력하여 국제결혼중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해 다문화 여성대학, 여성결혼 이민자 사회 통합, 여성결혼 이민자 농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이번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의 방문을 계기로 농업분야의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업무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